

문화포교로 외국인들 마음 활짝 열어

부처님오신날 맞아 동림사 한·러 문화체험

여기가 사찰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금발의 사키 조다(초등4)는 노랗게 물든 천연 염색천을 두 손에 들고 마냥 신이 났다. “재밌어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부처님 손그림도 신기하지만 천연염색이 제일 신기해요” 사키는 우리말로 수준급이었다.

선사화를 통한 문화포교에 앞장서는 부산 가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유일 러시아국제학교와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전통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하는 공간은 막혀 있다”며 “사찰 관광이 아니라 사찰의 살아있는 문화를 체험하게 해 한국불교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타 스님은 “이번에 초청된 러시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안타까웠다. 이들을 위해 산문을 활짝 열게 됐다”며 “한국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좀만해지길 기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초청 전통문화 체험 연등만들기도 '인상적'

가장불교연합회(회장 정오스님)가 주최하고 동림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5월 4일 동림사 경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국제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50명과 동명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인 중국, 필리핀, 몽골 유학생 30명 등이 모여 전통 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유일의 '주한러시아대사관 부산학교' 소속 학생들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처음 기획되었다. 이는 성타 스님이 러시아부산학교에 정기적인 미술 수업을 지도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가장불교연합회 포교국장 성타 스님은 “한국에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렀다 가지만 정작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



부산 동림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러 문화체험' 행사를 갖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문화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에서 한국미술을 지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생생한 불교문화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에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러시아부산학교 안토니 교사는 “불국사나 범어사 같은 큰 사찰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체험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한국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동명대 교환학생 모담모 아우티스타(호텔경영학과)씨는 “진절하고 자상한 한국

봉사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전통다도의 예절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로는 관세음보살 42수 따라 그리기, 투호, 전통염색체험, 다도, 활쏘기, 연등 만들기, 떡방아 찧기 등 다채로운 한국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러시아 국제학교는 러시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내 유일의 러시아인들을 위한 학교로 초·중·고 과정을 가르치는 러시아 대사관 산하 정규 사립 교육 기관이다. 설립자는 고신대 의대 홍상태 교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어버이날 맞아孝 잔치 한마당

서원노인복지관 5월 8일 경로잔치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스님)이 위탁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사랑과 감사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서원노인복지관 경로잔치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경로 효잔치는 지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에서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부모 은중경의 부모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라”고 당부했다.

기념식후에는 대전문화재단15호 ‘승무’ 예능보유자 현봉사 법우 스님의 살풀이, 양반춤 공연과 전주시 공무원 간부부인들로 구성된 명사모의 전통춤 공연, 전주시립 예술단의 태평무, 사물놀이, 산조향주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부모 은중경의 부모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5월 9일 봉축법회

200만 전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전남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법회가 개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봉축법회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중) 불교회와 경승단(경승실장 몽산스님)은 지난 9일 청사내 남아홀에서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개최했다.

다과회로 이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8명의 학우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환경이 열악한 507전경부대에 100만원의 위문품이 전달됐다.

행사는 전 조계종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몽산 스님을 비롯해 전석중 청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등 300여명의 경찰과 신도들이 참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1부 봉축등 점등식과 관복의식, 제등행진에 이어 제2부 봉축법회, 제3부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정의 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풍성'

전북 봉추위, 어린이 큰 잔치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전북부처님 오신날 봉추위가 마련한 제10회 전북 어린이 큰 잔치와 불교합창제가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추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 금산사 주지)가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불교청년회, 대불련, 전북불교회관이 공동주관한 전북어린이 큰잔치는 ‘맑고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속에서 어린이들과 함께’라는 주제로 전북지역의 초등학생과 학부모 가족 등 2천여명이 참가했다. 전북어린이 큰잔치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불교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으로 펼쳐졌다.



전북 봉추위는 5월 4일 전북 어린이 큰 잔치와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각각 유치부와 초등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전북도지사, 교육감, 대회장의 상이 수여되며 참가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불, 108염주 꿇기, 단주 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사경, 연꽃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제기차기, 투호, 단체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등도 마련됐다.

또 세심다화에서 마련한 다도체험, 페이

스 페이팅, 풍선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스탬프도장을 찍어주고 도장 숫자에 맞는 경품을 전달해 어린이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덕진공원 수변무대에서는 댄스 경연대회, 마술쇼, 노래, 영어 말하기,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특기를 가진 어린이들이 장기자랑과 특별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같은 무대에서 전북불교합창제와 천태종에서 준비한 불교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민가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무주 향산사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등이 출연해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찬불가를 선물했다. 불교합창제에는 특별히 불가사 김범룡이 출연해 '바람 바람' 등 히트곡을 불러 부처님오신날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큰잔치와 불교합창제를 통합해서 진행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늘었고 우리 민속문화 체험과 불교문화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 온 가족이 함께 하루를 즐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암당 성관대중사 문화진흥회 발족식

해암당 성관대중사 탄신 94주년 기념 화보집 봉정법회 및 (사)해암선사문화진흥회 현관 발족식을 가졌다.

법보총장 해인사 원당암에서 5월 1일 열린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하여 기념 화보집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육법공양과 문도대표 성법 스님의 화보집봉정이 있었다. 해암대중사는 1993년 해인사총림 제6대 방장,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었으며 2001년 열반했다.

이날 해암문도회는 해암당대중사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사)해암선사문화진흥회를 발족했다. '해암선사문화진흥회'는 선수행,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장학문화사업, 효사상 실천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해암선사 문화진흥회 발족식

“정성 담긴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원효사·동원사 자비나눔 행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5월 5일 경내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김치 200상자를 전달했다.



원효사 자비의 김치 전달식

이날 원효사 신도들은 미리 장을 보아는 김치재료를 오전부터 버무려 열무김치, 무김치를 비롯한 생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신도회 다산회, 청년회 회원들이 정성을 보태어 만든 김치는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자비선행회와 영랑나눔복지회, 복구정, 동구 산수동 주민자치센터, 소아암백혈병 환우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자비의 김치를 전달한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여름에 드실 시원한 김치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을 맞이하여, 동구정 불자회와 공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공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동구 지산공공원은 3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동원사에서 마련한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불자회와 자비선행회, 동원사 봉사팀, 불교기획 카일라스의 도움이 더해져 의미가 더했다. 행사는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노회용 동구구청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자 음악인 유상호씨와 가수 정아씨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만여 불에 사부대중 염원 담아

삼광사 봉축점등식

전국 단일사찰로는 최대 규모인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장도정 총무원장, 임해경 교육감, 신용선 부산경찰청장, 김무성 국회의원, 나승민 국회의원, 이현승 국회의원, 김은중 구청장을 비롯 불자 5천여 명이 동참했다.



삼광사 봉축 점등식에는 3만여 명이 켜졌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삼광사 사부대중의 공양으로 밝히는 감로의 등불로 각자의 마음에도 무명을 견어내고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남북의 평화와 다문화 다종교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등불을 밝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자”고 말했다.

명이 현전하여 광도중생의 광휘를 만경하에 두루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점등식은 삼귀의, 국민의, 반야심경독경, 범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축사, 축가, 석가모니불정근, 발원문, 점등, 사후서원으로 진행됐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범어를 통해 “오늘 밝히는 연등은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연등을 밝히는 인연으로 구류중생의 무량한 복진이 드러나고 천상천하 제불보살의 자비광

한편, 삼광사는 12일 삼광학생예능대회, 16일 봉축전야점등대법회와 부산시립 어린이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 17일 다문화 다종교인과 함께하는 봉축법회, 제2회 부산의 아름다운 3경소 전국사단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제현사 시비제막식

‘도동 시비 동산’ 세 번째 시비 제막식이 5월 6일 대구 도동 제현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운영위원장 관대자 대표와 흥천사 조실 동봉 스님을 비롯해 대구시 각구청의회 의원, 대구문인협회, 영남아동문화회 회원 등 사부대중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효성사 제향대제

5월 8일 분향사서

제 1327주년 원효성사 제향대제가 5월 8일 분향사에서 개최됐다. 원효학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제향대제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분향사 주지 정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불국사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삼귀의레반아심경 봉독, 불국사 성타 스님의 제향범어 종사영남 등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원효학연구원 이사장인 성타 스님은 “원효 스님이 주석하신 분향사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성지화하자. 이를 통해 원효스님의 정신과 사상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원효성사는 서기 617년 압량군 불지촌(현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전하며 민중불교를 위해 헌신했다.

이날 행사는 경내 동산에서 제막식과 함께 컷팅행사를 봉행한데 이어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 동구의회 의장, 공영구 대구 문인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제현사 시비 제막식

원효성사는 서기 617년 압량군 불지촌(현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전하며 민중불교를 위해 헌신했다.

손운철 대구지사장